

“겨울속 영상이 본래 면목과 무슨 상관...”

마음과 경계

알고 보면 마음도 없고 경계도 없다. '있다, 없다' 하는 개념은 우리가 만든 것이다. 실질적인 진리의 차원에서 보면,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런 것을 직접 체험해서 소화하지 않고는 가다를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안목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눈앞의 허공은 경계가 아닙니까? 경계를 가리켜 마음을 보는데 어찌 없다고 하겠습니까?”

허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경계다.

“어떤 마음이 너더러 경계 위에서 보게 하느냐? 설혹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경계를 비추는 마음일 뿐이다.”

이미 우리는 누구나 마음도 보고 있고, 허공도 보고 있고, 눈도 보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착각하여 보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뿐이다. 그 한 생각을 돌이켜 보라. 그렇지만 본다고 해도 어리석은 말이고, 보지 못한다고 해도 어리석은 말이다. 개구족착(開口即縛), 입만 열면 족시 멀어진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는 사람은 변화하는 가운데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의연하게 본다. 따라서 눈앞에서 어떤 변화가 벌어지더라도 휩쓸리지 않는다. 겨울에 비취지는 것처럼,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를 대하고 한인(漢人)이 오면 한인을 대할 뿐이다.

사람이 겨울에 얼굴을 비취를 때처럼, 눈썹과 눈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래 영상일 뿐 너의 본래면목과 무슨 상관이었겠느냐?”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다 환이다. 겨울에 비취지는 영상도 내가 아니고, 겨울 속 영상을 보는 것도 내가 아니다. 하지만 '나'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의 일이다. 그것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아나, 모르나 그것만 요구한다. 그 외의 일이란 다 군더더기이고 알음알이에 불과한 것이어서, 옳다 그르다 따져봤자 차별만 더하는 것일 뿐 본래면목과는 아무런 상관성이 없다.

“만일 비중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볼 수 있었습니까?”

보고, 안 보고의 차원이 아닌데 분별이 남아 있는 것이다. 공부를 했어도, 알음알이[知解]가 가지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의자함”에 빠진다면 항상 의지할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야 언제 깨달을 수 있었겠느냐? 너는 ‘손을 털고 그대에게 배보일 것이 아무 것도 없구나, 수천 가지로 말한들 모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해 <23>



범어사 주지

“눈 앞의 허공 경계 아닙니까? ‘개구족착’ 입만 열면 멀어져 본다고 해도 어리석은 말 못 본다고 해도 어리석은 말이 도리 알면 ‘변화’ 의연히 봐

“비중에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분별이 남아 있어 묻는 것

“마음을 분명 알았다면 비추면서도 실제 없습니까?” “눈뜨고 잠꼬대 하지말라”

“백가지로 많이 아는 것이 구함 없음만 못하다”

이것이 집착 여의는 ‘무구소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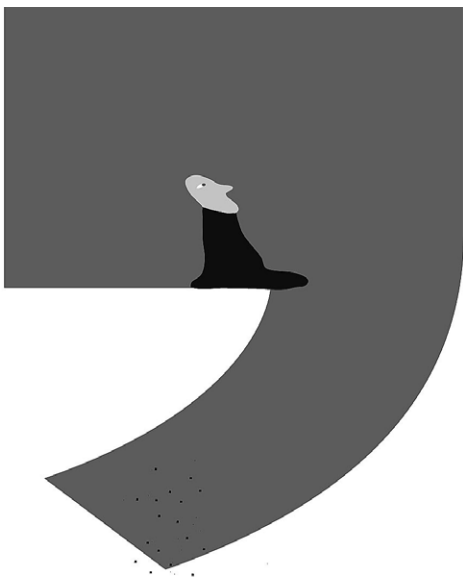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두 헛수고로다.’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천차만별로 이야기하지만, 만들어진 그림자는 다 그 속의 일이다.

“마음을 분명히 알았다면, 비추면서도 실제는 없습니까?” “아무 것도 없다면, 어찌 비출 수가 있었느냐? 눈을 빨리 뜨고 잠꼬대 같은 말을 하지 말라.”

무언가 있기 때문에 비취지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알고 보느냐 모르고 보느냐의 차이다. 그렇지만 알고 보는 데도 계속 갇히는 사람에게는, 세월이 약이라는 말밖에는 해줄 말이 없다. 급하게 알려고 하지 말고, 여유를 갖고 흘러가다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날이 있다. 그것을 급하게 알려고 욕심을 내고 물으니, 거기에 맞춰서 황백스님이 답을 하는 것뿐이다. 바보처럼 시간 보내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길이다.

배후가 자주 머리로 이해하려다보니, 어지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그래도 황백스님은 일일이 꼭답스럽게 알려준다. 교학의 입장에서 경전의 구절을 빌어 부처님의 말씀을 설하기 때문에, 선(禪)법문과는 차이가 난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지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을 눈뜨게 해줄 수 있는 힘을 지닌 황백스님이 막 깨달음을 눈뜬 배후에게,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 다루듯 가르침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배후 또한 지식의 입장에서 부모인 황백스님에게 어떻게 해야 자식된 도리를 잘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무구(無求)

상당하여 말씀하셨다.

“백 가지로 많이 아는 것이 ‘구함이 없음’만 못하다. 도인이라 ‘일 없는 사람[無事人]’이어서, 실로 허다한 마음도 없고 나아가 설할 만한 도리도 없다. 더 이상 일이 없으니, 훌쩍 돌아가라.”

《유마경》에 “법을 구하고자 한다면, 일체 법에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달마대사도 《이인사행론》에서 “구함이 없음의 소중함을 아는 것은 참으로 도에 이르는 관문이다. 이것이 집착을 여의는 ‘무소구행(無所求行)’이다.”고 하였다. 한편 임제선사는 “일 없는 것이 귀한 사람이다.[無事是貴人]”고 하였다.

세월 보내는 것이 약이다. 흰하게 다 드러난 이 일 외에, 무엇이 더 있다고 그렇게 알려고 애쓰는 것인가? 지금까지 찾고 구하는 모습으로 살아오다가, 시절인연으로 단번에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그 변화를 한꺼번에 소화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무언가 툭 터진 후 눈이 밝아지는 했지만, 스스로 확절하지 못하면 예전 습관대로 찾고 구하게 마련이다. 이런 변화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과 공명하며 기운을 나누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도 함께 좋아질 것이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㉓



그 나라에 태어나려는 자는 마땅히 세가지 복(三福)을 닦아야 한다.

〈관무량수경〉

위험한 월반(越班)

유명한 유학자 선생님의 글에서 읽은 내용이다. 어렸을 적부터 집안 어른들을 모시고 《사서삼경》을 다 읽었다. 그런데 스승에게 나아가니, 이 스승님이 다시 사서삼경을 배워라 말씀했다는 것이다. 몇 번이고 월반의 위험성을 강조하시면서.

그렇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서 그 ‘기본’을 다지는 것이 아닐까. 진부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만고의 명언이다.

다시 그 유학자의 예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그토록 월반의 위험성을 경계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유학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유학은 봉새처럼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가지 못하게 한다. 현실에 발을 붙여 맨다. ‘봉새’의 비유가 ‘장자’에 나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장(老莊)은 좀 날아가란다.

현실에서 아픔을 겪은 소외자들이 노장을 좋아하는 이유이다. 거기서 ‘치유’되기 때문이라.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불교 역시 좀 날아가기 쉬운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다. 대표적으로 선이 그렇고, 정토사상이 그렇다. 깨달음의 세계로 날아가기 쉽고, 극락으로만 날아가기도 쉽다.

소설 속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겨울의 유산》(다치하라 마사아키 지음, 동국대출판부)에서 무용(無用)은스님은 눈어와 선아를 같이 가르친다. 1930년대의 우리나라 절에서이다. 물론 현실에서도 유교와 선을 같이 가르친 선지식이 영 없지는 않았다. 탄허 스님이 그러하셨다.

위험한 전수(傳授)

일본의 정토종 개조 호넨(法然)스님은 ‘오직 염불만 하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전수염불이다. 이 주장은 많은 파란을 불러왔다. 기성 불교단이나 다른 종파로부터 적지 않은 반발을 불렀다. 한 때, 귀양을 가는 신세가 되기도 했다.

‘오직 염불만 하라’면, 다른 모든 수행들은 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다른 모든 수행을 같이 한다면, 겸수(兼修)가 될 것이다. 호넨 스님은 겸수염불이 아니라 전수염불을 내세움으로써 정토종의 독립을 이루어내기도 했다.

그런데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경전에서 ‘염불만 하라’고 설해

져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적어도 〈관무량수경〉에 의지하는 한,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다. ‘그 나라에 태어나려는 자는 마땅히 세가지 복(三福)을 닦아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첫째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스승을 받들어 모시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목숨을 죽이지 않으며 열가지 선업을 닦는다. 둘째는 삼귀의를 받아 지니고 모든 계율을 갖추며 위의(威儀)를 범하지 않는다. 셋째, 도를 향하는 마음을 발하고 인과의 법칙을 깊이 믿으며, 대승경전을 읽으면서 수행자들에게 권진(勸進, 정진하기를 권함)한다.”



그림 · 박구원

이것이 기본이다. 이 위에 다시 부처님께서는 극락왕생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행을 말씀하신다. 그것이 이어서 나오는 16관(觀)이다.

일본불교사 안에서 호넨 스님이 담당할 역할이나 고뇌는 적지 않았다. 그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 더 필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착한 일을 하면서 염불해서는 안 되는 이유, 계율을 지키면서 염불해서는 안 되는 이유, 또한 대승경전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면서 염불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극락을 갈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좀 위험하지 않은가 싶다. 전수(傳授)는 매력적이거나 효과적일지는 몰라도, 아무래도 위험한 것 같다. 역시 대경대법(大經大法)은 겸수(兼修)에 있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교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알기 쉬운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강의 일정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공신의 제법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으로 짠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	---